



## 한국 중소기업, 아태지역 경쟁력 평가부문 3위에서 5위로 하락

- UPS '아시아 비즈니스 모니터 2009' 발표
- '경쟁력 재고와 성장기회 모색을 위한 자금 확보 및 정부 지원 절실'

2009년 6월 30일 (서울) - 세계 최대 규모의 특송 회사이자 공급망 서비스 리더 UPS는 오늘 'UPS 아시아 비즈니스 모니터 2009'(UPS Asia Business Monitor 2009, 이하 UPS ABM 2009)를 발표했다. 아시아의 주요 12개국 중소기업 대표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한국 중소기업은 경쟁력 평가부문에서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5위를 기록, 지난해 3위에서 두 단계 하락했다.

### <아태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순위>

2008		2009	
1	중국	1	일본
2	일본	2	중국
3	한국	3	싱가포르
4	홍콩	4	홍콩
5	싱가포르	5	한국
6	대만	6	대만
7	인도	7	호주
8	호주	8	인도
9	태국	9	말레이시아
10	말레이시아	10	태국
11	인도네시아	11	인도네시아
12	필리핀	12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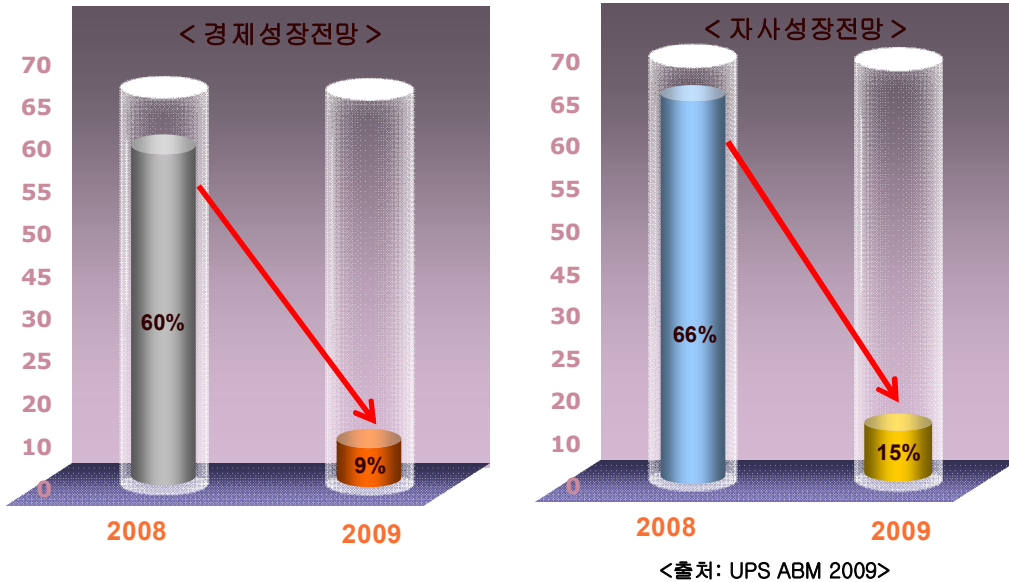
<출처: UPS ABM 2009>

UPS ABM 2009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대표 86%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정부 지원 부족과 자금 및 운영자본 확보의 어려움이 경쟁력 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답변했다. (첨부1 참고)

국내 중소기업 대표들의 2009년에 대한 전망은 전반적으로 비관적이다. 지난해 60%가 경제성장을 낙관한 것과 대조적으로 올해에는 9%만이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사 비즈니스에 대한 성장기대 또한 2008년 66%에서 51% 낮아진 15%로 집계되었다.



<2009 경제 및 자사 경제성장 전망>



특히, 대표들의 57%는 시장침체와 경기불황이 방잠을 설치게 하는 요소라고 답했고, 자금흐름과 부채 증가(47%), 고품질 노동력의 확보와 유지(46%) 문제 또한 고민이라고 답했다. (첨부 2 참고)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대표들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자금 확보 및 대출 용이성 재고(73%)를 돕고, 연구개발(68%), 교육과 훈련(47%), 세제혜택(44%) 등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첨부 3 참고)

경기 불황에 대처하고 경쟁력을 유지하여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 분야로의 이동(45%), 신규시장 모색(14%), 브랜드 및 제품 이미지 재고(14%)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첨부 4 참고)

정부 규제 및 정책과 관련해서는 45%가 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경제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30%로 나타났다. (첨부 5 참고)

한편, 향후 3~5 년 동안 한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비즈니스 영역으로는 IT 분야(54%), 제조업(31%), 자동차(29%), 생명공학(26%) 등이 선정되어, IT 분야에 대한 높은 성장 기대감을 반영하며 IT 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또한, 2009 년 가장 성장이 유망한 분야로는 IT(51%), 생명공학(23%), 제조업(22%) 등으로 집계되었다. (첨부 6, 7 참고)

향후 공급망 운영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 중소기업대표 59%는 운송 및 유통 비용 감축이라고 답했고, 32%는 현재 상태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첨부 8 참고)

UPS 코리아 장석민 사장은 “UPS 아시아 비즈니스 모니터는 아시아 전역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창구의 역할을 해왔다. 중소기업들이 그들 사업영역에서



궁극적인 변화를 꾀하면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 때에 보다 나은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UPS는 첨단 기술이 탑재된 다양한 공급망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급망 전략을 강화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렇게 UPS는 한국에 최첨단 공급망을 구축하여 아태 지역의 주요시장 중 하나인 한국의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완비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내 중소기업 대표 39%만이 세계 경기가 2009년 혹은 2010년에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고, 61%는 2011년 이후에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 가운데, 한국 중소기업들의 이머징 마켓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투자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위 3개국은 베트남(38%), 중국(33%), 인도(26%)로 집계되었다. (첨부 10 참고)

###

### UPS Asia Business Monitor(UPS ABM)에 관하여

UPS는 2005년부터 매년 UPS ABM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역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커뮤니티인 중소기업들에게 급변하는 비즈니스 니즈에 대한 최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8년 8월 개최된 제 3차 APEC 경제인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었듯이, 중소기업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체 비즈니스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노동력의 80%를 고용하고 있다. 올해 UPS ABM은 아시아 12개 주요 경제국의 기업대표, 사업가, CEO, MD, 및 고위 임원진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UPS ABM 2009

- UPS ABM은 역내 중소기업 리더들에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식견, 태도, 관례 등에 대한 최신 식견을 제공한다.
- UPS ABM 2009는 UPS ABM 2009는 2008년 1월 8일부터 2009년 2월 27일까지 중소기업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리더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인터뷰는 독립 조사기관인 TNS에 의뢰하여 실시했고, 각국의 모국어를 사용했다. 조사대상 중소기업은 고용자 수가 250명 미만인 기업들로 정의했다.
- 인터뷰는 다음 12개 국가에서 실시했다. : 호주 (100명), 중국 (150), 홍콩 (100), 인도 (100), 인도네시아 (50), 일본 (100), 한국 (100), 말레이시아 (100), 필리핀 (100), 싱가포르 (100), 대만 (100), 태국 (100)
- 인터뷰 대상자는 자동차, 의류/섬유, 의료/제약, 완구/스포츠 용품, 전자/전기, 선물/가정용품, 시계, 보석/광학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 인터뷰 대상 기업들의 평균 비즈니스 기간은 22.6년이다.
- UPS ABM 2009의 전문은 [www.ups.com/abm](http://www.ups.com/ab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UPS에 관하여

UPS는 세계 최대 규모의 특송 및 공급망 서비스의 글로벌 리더이다. 100년이 넘는 운송 및 물류 서비스 경험을 지닌 UPS는 다양한 솔루션을 겸비한 선도적인 글로벌 교역 전문 기업이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200여 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UPS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관련 뉴스는 웹사이트 [www.ups.com](http://www.ups.com) 및 [pressroom.ups.com/RSS](http://pressroom.ups.com/R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문의

UPS 코리아: 김은진 사원(2022-1215, khelen@ups.com)

오길비 PR: 정효진 대리(513-1578, hyojin.jeong.@ogilvy.com)